

# 골프장 수익금 매년 24억원 사회환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민 문화사업 등 집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공사가 운영하는 드림파크 골프장(36홀)의 2013년 개장 후 지난해까지 수입이 1,402억원이고 지출은 1340억원이며, 주민지원사업을 시작한 2015년부터 7년간 연평균 지출액 156억원의 15.4%에 해당하는 24억원을 주민지원사업에 집행했다.

드림파크 골프장은 1992년부터 2000년까지 153만3427㎡(46만 평)에 6400만 톤의 쓰레기를 매립한 제1매립장을 2014년 아시안게임에 맞춰 547억원의 사업비로 2012년 9월에 준공한 퍼블릭 골프장이다. 2013년 개장 이후 9년 동안 총 수입은 1402억원으로 입장료 1113억원(79.4%), 카트 대여료 221억원(15.8%), 식음료 매장 등 임대료 67억원(4.8%)의 순이다.

입장료는 주중에는 매립지 영향권 주민이 6만원, 서구와 김포 주민 7만2000원, 인천시민 7만8000원, 일반인 1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경.

(사진=수도권매립지공사)

만8000원이고, 주말에는 매립지 영향권 주민이 12만원, 나머지는 모두 14만5000원이다. 카트 대여료 등은 주민과 일반인 동일하다.

지출은 1340억원으로 수입의 95.5%를 지출했다. 골프장 운영, 코스관리, 조경 등 위탁용역비가 679억원(50.7%)으로 가장 많고 자산취득비 181억원(13.5%), 주민지원사업비 169억원(12.7%)의 순이다.

2015년부터 시작한 주민지원 사업

의 주요 내역은 주민고용 조정사업이 49억원(29%)으로 가장 많고 불우이웃돕기 35억원(21.1%) 가을축제 23억원(13.7%) 간이체육시설 운영 23억원(13.5%) 시민문화사업 12억원(7.4%)의 순으로 연평균 24억원을 주민 일자리 창출과 문화·체육·복지 사업에 사용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주민지원기금(9억원)을 출연하기 시작했다.

주민지원사업의 내용은 2012년 10월 주민대표와 환경부, 공사가 체결한 '수

도권매립지 골프장에 관한 주민상생협약서'에 따라 주민대표와 공사 임직원이 동수로 구성된 드림파크상생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오일균 체육시설운영부장은 "상생협약서에 따라 주민을 주주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골프장 수익금은 전액 주민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드림파크 골프장은 동절기 시설물 정비 위하여 다음달 6일까지 14일간 휴장한다. 안중삼 기자

# 장애인·유소년 스포츠 지원 '맞손'

### 인천시-SK텔레콤 스포츠 파트너십 체결

인천시와 SK텔레콤은 24일 시청에서 인천 스포츠 균형 발전과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SKT는 인천시 소속 장애인 스포츠 종목 선수들이 원활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시는 소속 선수가 최상이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SKT는 또 시민구단 인천 유나이티드 FC가 주관하는 순수 아마추어 중학생 축구대회 '미들스타리그'를 공식 후원하는 한편 생활 농구클럽을 통해 지역 아동과 소외계층의 스포츠 체질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지역 스포츠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며 기업들의 나눔 경영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안중삼 기자

# '덕적이고 야구부 희망찬 도전 응원합니다'

### 덕적고야구후원회 '넥스플랜' 3천만원 기부... 전달식 가져

인천시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덕적이고야구후원회'에 (주)넥스플랜이 3000만원을 기부하는 기부금 전달식을 24일 덕적면사무소에서 가졌다.

폐교 위기에 있던 웅진군 덕적고등학교는 지역 내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학교의 존치를 염원하는 지역주민과 함께 지난해 12월에 덕적고등학교 야구부가 창단되었다.

'덕적이고야구후원회'는 후원금을 활용해 야구부가 훈련하는 덕적면 종합운동장의 시설 정비와 야구 장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후원회 회원뿐만 아니라 야구부 학생 및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택상 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나눔을 실천하는 선한 영향력으로 더불어 폐교 위기에 있던 덕적고등학교의 발전과 애정 어린 마음으로 야구부의 희망찬 도약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김중환 기자

# 대형건설 공사현장 특별점검

###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 관련 공동주택 신축현장 2곳 찾아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 사망사고와 관련해 24일 지역 내 대형 건설공사장 2곳을 찾아 특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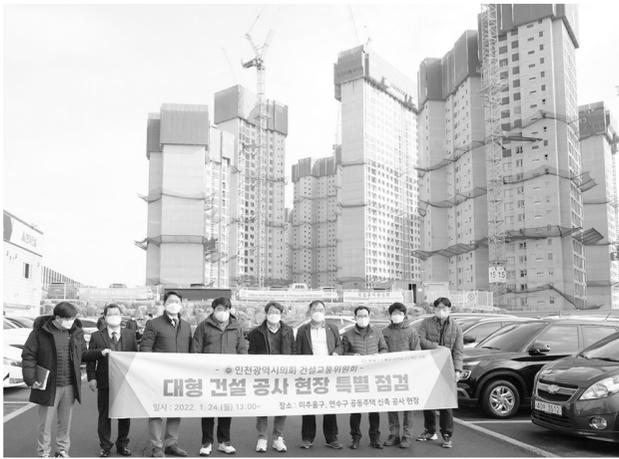
이날 건설교통위원회는 현대건설·대우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는 '주안 2·4동 재정비 촉진지구 주안1구역'과 한화건설이 시공하는 '연수구 선학동 무주공골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등 두 곳의 현장을 찾았다.

현장에서는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에서 언급된 겨울철 콘크리트 타설과

양생 문제, 품질·안전관리, 감리업무 수행 등을 두루 살펴보고 동시에 공사 공정 관리 사항 및 현장 직원의 안전관리 실태도 집중 점검했다.

현재 인천지역에서는 일반건축물 192곳, 공동주택(아파트) 125곳, 정비사업 현장 33곳 등 총 350곳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준수 위원장은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최근 3년간 붕괴사고 전수조사에서 광주 신축아파트 사고와 같은 붕괴가 33건으로 이중 3건 중 1건이 대형건설사가 시공하는 현장이었다"며 "이에 관련부서에 겨울철 공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철저한 감독뿐 아니라 감리원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안중삼 기자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 사망사고와 관련해 24일 지역 내 대형 건설공사장 2곳을 찾아 특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인천시의회)



인천시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덕적이고야구후원회'에 (주)넥스플랜이 3000만원을 기부하는 기부금 전달식을 24일 덕적면사무소에서 가졌다. (사진=인천시)

# 계양구청장 설맞이 현장근무자 격려

### 근무자 노고 격려, 애로 청취

계양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24일 구민을 위하여 일선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직원·환경미화원·산불감시원 등 현장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형우 계양구청장은 "올 겨울 연이은 한파로 인해 힘든 근무환경에서도 일선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준 여러분 덕분에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작업 중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계양구에서는 현장근무자를 비롯한 공직자 10개반 314명이 설 연휴기간 동안 구민이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송홍일 기자

# 다중이용시설 가스시설 안전점검 강화

### 인천경제청, 설 연휴 대비 오는 28일까지, 31곳 대상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일정 규모 이상 가스를 사용하는 산업체와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가스시설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인천경제청은 설 연휴를 대비해 가스 누출, 화재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31개소(송도 19, 영종 9, 청라 3)에 대해 가스 시설 적정 유지관리 및 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 안전점검을 28일까지 실시한다. 또한 경제청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

행'에 맞춰 취약시기별로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다중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 등 총 1306개 시설에 대해 △ 시설물별 안전관리규정 수립 및 이행 여부 △유해·위험 요인의 점검과 위험 징후 발생여부 △각종 법정검사의 수검 여부 등을 연중 중점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하

여 신속하게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이력관리를 통해 사전적 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시설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작은 부주의가 자칫 중대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스 시설 안전 점검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중삼 기자

## 안테나

### 구월동 자생단체연합, 명절 선물 세트 기부



남동구 구월1동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지역 자생 단체연합으로부터 설을 맞아 이웃돕기 선물 세트 180여 개를 기부받았다. 참여 단체는 주민자치회·통장협의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방위협의회·자유총연맹·새마을부녀회·자율방범대, 바르게살기위원회 및 사랑나눔회 등 총 9개다.

정인지 통장협의회장은 "이웃돕기 기부는 2016년부터 시작됐으며 올해도 490만원을 모금해 기부 물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기부 물품은 저소득가정·홀몸노인·장애인 가정 등 소외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충길 구월1동장은 "7년째 이어지는 따뜻한 이웃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기부가 매해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근식 기자

### 동서식품, 설 명절 이웃 사랑 나눔의 쌀 전달



동서식품(주)는 24일 설 명절 이웃 사랑 나눔의 쌀 200포대(2000kg)를 부평구에 전달했다.

동서식품은 '사회적 책임 실현'의 경영철학으로 매년 설 및 추석맞이 사랑의 쌀을 전달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일환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2년 연속 성금 5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부평구에 지속적인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전달받은 쌀은 부평지역 내 홀몸노인·한부모 등 저소득 가구와 취약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소외계층 등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광복 동서식품(주) 대표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더욱 힘들어진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쌀을 전달하게 됐다"고 전했다. 송홍일 기자

### 인천시, 귀농귀촌교육 프로그램 신설·확대

인천시는 2022년 귀농귀촌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확대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준비 단계부터 교육·창업 멘토링·관리까지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국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세로 전환되고 인천 귀농귀촌교육 수요자의 영농 정착률이 증가함에 따라 △귀농귀촌 교육 확대 △귀농창업 멘토링 지원 △귀농귀촌 상담실 설치·운영 3개 분야로 나뉜 귀농귀촌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귀농귀촌교육은 귀농귀촌 종합과정(상·하반기) 창업과정(3개반) 농업기계과정, 귀농생활과정 총 4개 과정으로 기초영농기술 습득부터 품목별 재배기술, 귀농창업까지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또한 귀농창업 멘토링 지원도 새롭게 실시한다. 소규모 품목별 학습조직을 구성해 관내 우수농장 현장실습과 귀농준비 애로사항, 재배기술 상담 등 선도농업인과의 멘토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정책·기술 등 자료제공과 맞춤형 상담을 위한 귀농귀촌 상담실을 설치·운영한다. 교육생, 귀농귀촌 희망시민 등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비치하고 정보 서비스를 강화해 교육 및 상담 만족도 증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안중삼 기자

### 인천시,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 업체 모집



인천시는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수리 등이 어려운 도서·벽지 어촌지역의 무상 이동수리·점검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 희망업체를 다음달 1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이동수리업체는 선박엔진, 기계·설비, 전기·통신 등 점검 및 수리와 관련된 사업자를 등록한 업체로 관내 어촌지역에 자체 점검·수리반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공모에 선정된 수리업체는 위탁 계약 시 직원의 인건비와 재료비·자재비·소모품비·피복비 등 작업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지원받는다. 안중삼 기자